

성 유대철 베드로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최병애 (파우스티나)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이우출 (예로니모)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고 해 성 사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관 면 혼 배
			주 일 ✦ 미사 전 30분 평 일 ✦ 미사 전 15분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 ① **교구장님 영명축일 '영적예물' 봉헌**
 - 11월 30일(토)은 서울 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의 영명축일입니다. 교구장님을 위해 교우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미사, 묵주기도, 주교를 위한 기도, 화살기도, 희생
- ② **구역주일 (11구역 주관)**
 - 일시: 11월 24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 구역주일에는 해당되는 구역에서 교중미사 때 미사 전례를 담당하고, 미사 후 1층 프란치스코 홀에서 친교의 장을 마련하오니 구역 활성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③ **병자안수 축복식: 11월 24일(주일) 교중미사 후**
- ④ **동절기 평일 오후 7시 미사 장소 변경**
 - 12월 3일(화)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평일 저녁 미사는 1층 프란치스코 홀에서 봉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첫째주 목요일 성시간 때는 2층 대성전에서 합니다.)
- ⑤ **위령성월 사별가족 초청미사**
 - 일시: 11월 19일(화) 오후 6시 20분~
 - 대상: 2018년 10월 ~2019년 10월말, 본당에 교적을 두신 사별 가족분
 - 문의: 연령회장 (010-7186-7222)
- ⑥ **제10회 청담동 성당 가톨릭 독서콘서트(제99회)**
 - 일시: 11월 21일(목) 오후 8시, 2층 대성전
 - 강사: 서정춘 시인
 - 주제: 서정춘이라는 詩人 이야기
- ⑦ **손뜨개 구유 전시회 (로사리오 카페 전시)**
 - 연말 불우이웃돕기를 목표로 올봄부터 준비하였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전시품은 판매 예정이며, 전금액은 불우이웃에게 기부됩니다.)
 - 일시: 11월 21일(목)~ 11월 24일(주일)
11월 28일(목)~ 12월 1일(주일)
 - 문의: 송 마리아 (010-8737-4514)
- ⑧ **사랑의 연탄나눔 (동전 모으기)**
 - 일시: 11월 30일(토) 오전 7시 30분, 성당출발
 - 오전 9시~12시까지 연탄나눔, 후원물품전달, 봉사활동
 - 수급 대상자: 도봉 1동 관내 소외된 불우이웃
 - 사랑의 연탄나눔 동전모으기는 11월 17일(오늘)까지 성당 사무실 제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문의: 현 베로니카 (010-7169-7025)
- ⑨ **제 59차 성지순례 동호회**
 - 일시: 11월 23일(토) 오전 7시, 성당출발
 - 순례지: 여우목, 마원, 진안리, 신양고백비
 - 준비물: 회비(4만원, 중식 제공), 순례책, 스카프
 - 문의: 송 요셉 (010-5252-1791)

- ① **성탄 대축일 제대꽃 봉헌**
 - 예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며 제대 장식을 위하여 꽃봉헌 하실 단체나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교무금 안내 (* 총 4,194세대 중 1,391세대 납부, 33.2%)**
 - * 교무금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의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봉헌금입니다.
 - * 교무금은 아래와 같이 쓰입니다.

1. 교회 발전과 유지	2. 본당 사목과 복음 전파
3. 사제·수녀 생활비 및 직원 인건비	
4.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5. 자선사업
- ③ **연말정산 기부금 안내**
 - 교무금 통장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일헌금, 미사예물 등 제외)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12월 15일(주일)까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통장에 명기된 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오니 책정자 변경하실 분들은 미리 변경 하십시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 1회 제출에 5년간 유효)
- 자동이체,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교무금 납부하는 분들은 꼭 책정자의 이름과 세례명을 기입하십시오.
- ④ **한기문연 후원회원 및 일반교우 성지순례 (베티성지)**
 - 일시: 11월 26일(화) 오전 8시, 성당 출발
 - 준비물: 묵주, 미사도구
 - 문의: 한기문연 사무총장 (010-8802-6887)
- ⑤ **김영선 수녀의 성서 무료 특강 '역사서'**
 - 일시: 12월 2일(월) 오후 1시, 2층 대성전
 - 대상: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이
 - 문의: 생활성서 (02-945-5985~7)
- ⑥ **11월 24일(주일): 시설보수 2차헌금**

모 임

 - 11월 17일(오늘): 사목회 전체회의
 - 11월 18일(월): 성령 기도회(강사: 장영자 아녜스)
 - 11월 19일(화): 해외선교 후원회 / 여성 성체조배회 / 전례분과
 - 11월 20일(수): 여성 구·반장 회의
 - 11월 22일(금): 해설단
 - 11월 23일(토): 성찬봉사회

성가번호 입 당: 27 예물준비: 220, 511 성 체: 185, 197 파 견: 28

화 답 송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 - 러 주님이 오신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07)

서평 <용서가 어려울 때>(3)

용서함으로써 용서받는다.

우리 대부분은 남을 용서하는데 조건을 붙인다. 날 괴롭힌 상대가 정말로 미안해하거나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이 선다면 그때 용서한다는 식이다. 조건을 정하고, 한도를 정해놓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주의 기도문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을 두고 “하느님도 조건을 두고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라고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딱딱한 마음에는 하느님의 용서도 들어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즉, “용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느님이 주시는 용서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63쪽) “용서함으로써 용서받는다.”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도 일맥상통하다. 결국, 진정한 용서는 ‘하느님이 주시는 무상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마태18,22)의 말씀대로 우리도 하느님의 용서와 닮은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진정한 용서는 선물이 다… 주기 위한 것(For-give)”(65쪽)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닌 흘려보내는 것

이 책은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트라우마로 남겨진 고통스러운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그러한 아픔을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잊지 못하는 기억을 무기삼아서 앙심을 품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한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면서 과거에 갇혀있으면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준다. 잊을 수는 없지만 용서하고 떠나보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용서하고 떠나보낸다는 것이 그저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동네북이나 샌드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74쪽) 그리스도인은 때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겪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정폭력과 같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다. 저자는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나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할 때 도망가신 예수님의 여러 사례를 들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스런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강조한다. “더 이상 참지 말고, ‘그만 좀 해’라고 말하거나, 단호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집을 나가거나, 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심지어 관계를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75-76쪽)

청담동 성당 주임 김민수 신부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감사 헌금 (11/06~11/12)	
연중 제 32주일	12,219,600원	정 요셉	50,000원
평신도 주일 2차	5,635,210원	장 미카엘라	500,000원
교무금	21,285,000원	성 마리아	300,000원
성소후원금 (11건)	200,000원	김 모니카	100,000원
교무금 납부 현황		박 보니파시오	30,000원
총 세대수	4,194세대	베네딕투스 챔버단	100,000원
총 납부세대	1,391세대	한국전통무용반	100,000원
지난 주 납부세대	5세대	익명	100,000원
총 납부율 (%)	33.2%	합계 : 1,280,000원	